

퀴즈 풀고 공연 즐기며 ‘대적필승’ 정신 무장 확립

New 정신전력
전투형 강군 **Up**

육군5보병사단
GP·GOP소초 대상 문화예술 접목 강연

연극 형식 창의적 교육 호평
격오지 장병 국가관 등 확립



26일 육군5보병사단 사자여단 예하 GOP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노래 공연과 접목한 정신전력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제공=정연원 하사

육군5보병사단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격오지 장병들을 위해 연극 형식의 특별한 정신전력 교육을 선보여 호평을 얻고 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병들은 교육을 통해 확고한 국가관·대적관을 확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단은 국방국악문화진흥회와 함께 ‘문화예술을 접목한 격오지 순회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정신전력 강의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한 이 교육은 격오지 장병들이 꾸준히 정신전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내고 있다.

26일 사자여단 예하 GOP부대에서는 북

한의 인권 실상, 대남도발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장병들은 강연을 경청한 뒤 소감문을 작성, 발표하며 대적관을 공유했다. 이어 북한 관련 퀴즈를 풀고 노래와 연극을 결집한 공연을 즐겼다.

교육에 참여한 김동연 일병은 “함께 노

래하고 즐기는 교육이라 더 흥미로웠다”며 “언젠가 적이 도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긴장감을 유지하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우소정(대위) 사자여단 정

훈과장은 “적 도발에 맞서 결전태세를 다지며 근무하는 최전방 장병에게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 태세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MZ세대 장병들의 정신 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교육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자

“최정에 전투원 자긍심으로 최선 다할 것”

2작전사, 300워리어 출전 장병 확정
포상·휴가 부여, 진급·장기복무 반영

강한 전사를 육성하기 위해 육군이 개최하고 있는 ‘최정에 300전투원(300워리어) 선발대회’에서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대표해 명예를 드높일 장병들이 확정됐다. 2작전사는 26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00워리어 최정에 전투원 분야에 참가할 ‘무열 최정에 전투원’을 선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며 “치열한 경쟁 결과 13개 분야에 200여 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2작전사는 체계적인 선발을 위해 지난 6월 기능별 선발 계획을 예하 부대에 전달했

다. 계획에는 평가 점검표를 비롯해 배점과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담자 참가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했다.

대회 기간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2작전사 전투참모단의 관련 부·실을 책임부서로 지정했으며, 각급 병과학교의 지원을 받아 선발을 진행했다.

2작전사는 출전 장병에게 포상과 휴가를 부여하고, 간부의 경우 결과에 따라 진급·장기 복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기간 2작전사는 육군 과제와는 별도로 부대 고유의 임무와 특성을 반영한 톱 예비군 지휘관, 해안 감시 장비 정비팀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정에 전투원을 추가 선발했다.

최정에 저격수로 선발된 육군39보병사



육군2작전사령부가 개최한 무열 최정에 전투원 선발 경연대회에 참가한 저격수들이 사격 평가를 받고 있다.

부대 제공

단 권성민 상사는 “무열 최정에 전투원이 곧 육군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경연대회를 준비했다”며 “2작전사 최정

에 전투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300워리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박상원 기자

필승해군 전통 이어갈 특전요원 42명 탄생

해군특전단, 특수전 장교·초급반 수료식

해군특수전전단은 26일 부대 한주호관에서 제69기 1차 특수전 장교/초급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장교 2명, 부사관 40명이 정예 특수전(UDT/SEAL) 대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 중 우수한 성적과 적극적인 훈련 태도를 보인 배문조 하사가 해군작전사령관상을, 이은호 대위(진)와 이강서 하사가 특수전전단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대위(진)는 “불가능이 없는 최고의

UDT/SEAL 대원이 돼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필승해군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수전 장교/초급반은 선견부대작전, 육·해·공 전전후 특수작전, 폭발물처리작전, 해상대테러작전 등을 수행하는 UDT/SEAL 대원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수료생 42명은 지난 4월 입교해 25주간 강도 높은 체력훈련, 극기주 훈련, 생존능력 배양 교육 등을 받았다.

또한 잠수학, 폭발학, 정찰학, 전술학 등 특수전 군사지식을 쌓으며 최정에 UDT/SEAL 대원이 되기 위한 능력을 연마했다.



26일 열린 제69기 1차 특수전 장교/초급반 수료식에서 박후병(준장·왼쪽) 특수전전단장이 수료생을 격려하고 있다.

부대 제공

이들은 앞으로 특수전전단 예하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료식을 주관한 박후병(준장) 특수전

전단장은 “훈련을 이겨내고 해군특수전 전단 요원으로 다시 태어난 수료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